

## 무법으로 태어나 준법을 거쳐 위법으로 성장하는 이유?\*

허 태 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본 논문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준법의식의 약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심리학적 이론들 비교분석하고, 특히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 기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요약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고전이론, 유전학과 생물학적 이론과 정신분석학, 성격이론, 지능도덕성 발달, 의사결정이론과 같은 심리학적 이론들의 특성과 준법과 위법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런 이론들이 현재의 범죄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직간접의 경험을 통한 준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위법행동이 준법의식과 인지부조화와 부정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 각성을 없애기 위한 준법의식의 변화시킨다는 인지부조화적 관점은 사소한 범규위반이 낮아지는 준법의식의 부분적 원인이라는 것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 되었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이론적 틀이 법률입안과 정책제안에 제안하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준법의식, 위법행동, 범죄이론, 인지부조화

---

허태균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허태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drtkhur@hufs.ac.kr

“한 겨울의 추운 늦은 저녁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함께 길을 건너가던 OOO은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인 파란불을 기다리지 않고 길을 건너려고 한다.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교육받은 아들이 신호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대부분 성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결정이나 다음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결정 중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대부분의 성인들은 법을 지키자는 자신의 아들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 아들의 용통성이 없음을 또는 우리사회 교통법규의 부적절성을 탓할 것이다. 위의 상황은 분명 어린이와 성인의 준법의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대부분의 한국사회의 성인들도 그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지금의 그들의 자녀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한때 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기의 준법의식이 성장해가면서 약화되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들을 개관하고, 특히 준법의식이 약화되고 법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심리적인 기제로 인지부조화(Festinger, 1957)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들을 통해 학문적 이론의 법률과 관련된 현실적 응용을 제안하려 한다.

한국인들의 법규준수의식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러한 의식상의 문제는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국사회에 유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운전태도 및 습관, 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실제로 2004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한국인들이 한국사회의 준법수준에 심각한 정도의 회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중앙일보, 2004. 7). 더 나아가, 한국은 지난 1992년도에는 교통사고율 세계1위를 기록하였고 1999년 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사상 최고인 70여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선일보, 2000. 5. 11), 그러한 경향성은 여전하여 2001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2.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OECD국가의 대부분 회원국가들의 평균(10명 이하)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중앙일보, 2004. 4).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높은 교통사고율이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자동차 수의 증가나 교통체계의 문제점들에 귀인한다고 제안하고 있다(노관섭, 2002; 명묘희, 김광석, 2003).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관련되어 있고, 일부 학자들은 이런 교통법규 위반행동의 대부분이 주로 인간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Hoyos, 1965; Klebelsberg, 1982).

### 준법과 위법행동에 대한 학문적 접근들

인간이 법규를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개인적 또는 환경적인 이유들과 요인들에 대한 범죄이론들은 오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제안해 왔다(박광배, 2001). 일부 최근의 연구들은 위법을 형법과 관련된 범죄(crime)와 공적인 행동양식과 삶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고 단속하는 규제적 위반(regulatory non-compliance)으로 분류하여 접근하고 있다(Makkai & Braithwaite, 1991). 또한 다양한 범죄이론들 중에 일부는 범죄와 규제적 위반 중에 특정 범주의 위법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기도 하다. 하지

만, 기존의 많은 범죄이론들은 이러한 구분이 없이 전반적인 위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발전되어 왔다. 또한 많은 기존의 범죄이론들은 인간들이 준법을 하는 이유와 동기와 위법을 하는 이유와 동기간에 뚜렷한 차이를 두고 정립되지 않았다. 단지 준법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은 준법의 이유와 동기가 약하면 위법이 일어나고, 위법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은 위법의 이유와 동기가 없다면 준법 할 것이라는 논리에서 각각의 이론들을 발전시켜왔다.

인간의 위법행동을 설명하는 철학적 배경의 하나는 범죄의 고전이론이다(박광배, 1996). 고전이론은 위법행위가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일어나며, 그 자유의사는 특정 순간에 그 개인의 당면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은 노력과 투자로 가장 최대의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찾는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한 위법을 저지를 인간의 유형이나 범죄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기본적인 인간행동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범죄의 고전이론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이라고 평가되는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위법행동이 거의 모든 사회에서 또 모든 인간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은 범죄의 고전이론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성향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Darwin(1859)에 의해 제안된 진화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들은 자신의 유전자의 번식을 위한 매개체로서, 특정 세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결국 더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유전자가 환경에 의해서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Dawkins, 1989). 진화론은 일반적으로 많은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개체의 신체적 물질적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다양한 인간 간의 심리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틀로 관심을 끌고 있다(Buss, 1995). 진화론은 유전자 번식의 매개체에 불과한 인간은 그 행동의 원리를 이기성에 두고 있기에 범죄행위가 궁극적으로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제안한다(Raine, 1993). 수컷들이 더 많은 암컷들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새끼를 위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동물의 새끼를 죽이는 행동들은 쉽게 동물들의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인간의 위법행동도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화론적 관점이 모든 인간이 왜 범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이고 다소 현학적인 해답을 추구한다면, 그 인간들 중에서도 위법성에서 선천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유전학적 이론들은 매우 현실적인 증거와 필요성을 근거하고 있다. 범죄의 유전학적 관점이 모든 범죄가 100% 유전적인 인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 간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과 가족, 친족관계와 같이 유전적인 유사성이 높을수록 범죄행동에서 유사성도 높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유전학적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는 대표적으로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기존 연구들의 일관되는 발견은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성장조건의 이란성 쌍둥이 보다 높은 범죄행동에서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Christiansen, 1977).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대해 양육방식과 같은 대안적인 가설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있지만(Allen, 1976), 일

반적으로 범죄행동에 미치는 유전적인 영향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준법과 위법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들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사고과정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추구하는 심리학은 특히 개인적 수준에서 인간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을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한다. 모든 범죄와 위법행위는 인간의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기존의 많은 심리학적 이론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의 위법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안해왔다.

#### 정신분석학적 이론

Freud에 의해 제안된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무의식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고 제안하고 이 영역들에서 성격의 세 가지 측면인 원초아, 자아, 초자아의 간의 정신역동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에서의 범죄는 원초아와 자아, 초자아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힘의 균형점을 찾지 못해서 건강한 성격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에 그 불균형이 반영된 반사회적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즉, 당면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하려는 쾌락의 원리에 의해 지배받는 원초아를 도덕과 양심의 원리에 의해 지배받는 초자아와 현실적 해결점을 찾는 자아가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간주한다. 또한 성격적 결함은 범죄행동의 내적 동기로 분류되는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유아기의 성적발달과정에서의 고착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특히, 정신분석학에서는 4-6세에 해당하는

성기기에 이성의 부모를 좋아하는 무의식의 욕구를 대처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초자아가 발달하는데, 이러한 도덕적인 초자아가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성향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제안한다.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발달을 통해 이 시기에 고착된 성격을 가지면 성인기에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보일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잘못된 동일시가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제안되었다(Rychlak, 1981).

#### 성격이론

정신분석학과 같이 범죄와 관련된 성격의 원리와 발달과정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위법과 관련된 몇 가지 성격적 특질들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일부의 사람들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개인차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우선 일부 연구들은 공격적 기질이 남성 청소년들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였다(Kellam, 1982). 특히 반사회적 성격은 범죄성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요인으로 제안되었고, 교도소 수감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연구결과와 강력범죄와의 관계성을 확인한 연구결과 등을 통해 지지되어왔다(Hare, 1983; McCord, 1982). 더 나아가, 범죄와 관련된 기질적인 요소로 흥분수준도 제안되어져 왔는데,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더 높은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고, 산만하며, 충동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Quay, 1965). 이러한 흥분수준에서의 차이를 반사회적 성격과 뇌의 결함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연결시키기도 한다(Hare & McPherson, 1984). 하지만, 이러한 성격이론적인 접근은 모순적이게도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그러한 성격적 특

질을 가져다주는 사후적 설명 논리로만 해석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지능/도덕성 발달이론

일부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개인차보다는 지능 또는 도덕성의 미숙과 같은 구조적 결함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들이 범죄인과 일반인들의 지능을 비교한 연구에서 범죄인의 지능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Sellin, 1972). 물론 현실적으로 지능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관계일 수 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지능이 범죄와 관련된 본질적인 요인일 가능성도 제안하고 있다(Raine, 1993).

범죄 또는 위법행동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성을 직관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론들로 정립되어 왔다. 도덕성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는 자긍심을 느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으로(Quinn, Houts, & Graesser, 1994), 법규와 관련된 행동결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심리적 개념이다. Kohlberg(1984)는 인간의 도덕성이 6단계에 걸쳐 크게 처벌 보상과 욕구만족에 의해 결정되는 전인습적 단계에서, 사회적 규범을 상대적으로 무조건 따르는 인습적 단계를 거쳐, 인간의 권리와 보편적인 원리를 고려하는 탈인습의 단계로 발달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일반인들에 비해 낮은 발달단계를 보인다는 것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만, 본 논문의 서두에 제안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들에 비해 성인들이 준법의식을 약하게 가지고 있는 현상과 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위법적 행동들을 최고의 도덕성 발달단계에 해당하

는 보편적 원리와 인간의 권리로 합리화하는 현실과 같은 직관적인 모습은 설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 의사결정이론

인간의 준법행위에 대한 설명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타산적 동기(instrumental motive)와 규범적 동기(normative motive)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Tyler, 1990). Kelman(1961)은 이해타산적 동기가 처벌을 피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욕구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범죄의 고전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동기에 근거해서는 준법행동이 감시와 통제, 혹은 선택가능한 대안적 행동의 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처벌을 보다 엄중하게 하고 처벌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Fuller(1991)는 운전자들에게 사고와 같은 위법행위의 부정적 결과들의 원인은 확실치 않은데 반해, 안전이라고 하는 준법행위의 결과는 명백하게 특정한 대가(예를 들면,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를 요구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쉽게 위법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구에서 구금, 교통사고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한 지각·평가정도가 교통위반 의도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Parker, Manstead, Stradling, & Reason, 1990).

반면에, 규범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개인은 준법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준법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법은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박광배, 조은경, 1998). 준법행위에 관한 규범적 관점은 보상과 처벌에 유도되는 순응이 아닌, 자발적 순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발적 순응은 경찰, 판사 등 법을 집행하는 주체나 법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 혹은 정부에 대한 지지에

서 나온다고, 또 개인적 도덕성이나 선악에 대한 지각 등의 요인들도 준법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와 반대로 법의 집행이나 법의 내용 자체를 비도덕적으로 지각할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규범적 관점의 설명이다(Tyler, 1990). Rothengarter(1988)는 운전 규범에 대한 지각과 다른 운전자들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규범적 성향이 실제 위반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Parker 등(1992)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기대가치 관점에 근거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교통법규 준수와 관련된 행동의사를 이해하는데 적용하여, 이해타산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을 검증하였다. 음주운전, 과속, 안전거리 위반, 차선변경 등과 관련된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개인적 태도(이해타산적 동기), 주관적 규범(규범적 동기), 지각되는 행동통제감, 등이 법규준수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개인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 모두 유의미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준법의식의 약화과정에서 심리적 기제들

위에서 언급된 많은 이론들은 인간이 법규를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과 이유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해 주지만, 본 논문의 서두에서 제시된 예와 같이 준법의식이 투철했던 어린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그 준법의식이 약화되는 과정에 대한 심리적인 기제를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범죄이론에서 선천적인 범죄행동성향을 강조하는 유전학적 접근과 그 선천성의 기원을 밝히는 진화론적 접근, 반사회적 성격과 같이 비교적 영속적인 개인차를 강조하는 성격적인 접근은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시간과 사회적 경험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지 못

한다. 또한 지능이론과 도덕성 발달이론을 이용한 설명은 같은 연령대의 범죄를 저지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비교는 가능하지만, 어린이보다 성인이 준법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기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인간의 자유의사를 강조한 범죄에 대한 고전이론과 법규위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관점에 근거한 심리학적 의사결정이론들은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준법의식의 약화와 같은 종단적으로 변화하는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행동 이후에 직접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행동수정이 일어난다는 학습원리를 관찰을 통한 간접적 경험으로 확대한 이론이다. 즉, 일반적으로 특정행동을 한 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 이후에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학습의 원리는 동물과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Bandura(1973)는 이러한 학습의 원리가 관찰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더 나아가 긍정적/부정적 결과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특정행동의 관찰을 통해서도 그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Baron, 1971).

이런 사회학습적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은 일반적으로 또래집단과 미디어의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Hanson과 동료들(1984)은 청소년들이 폭력범죄나

반복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 중에 하나가 비행청소년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부라고 제안하였다. TV와 같은 대중미디어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부 연구들은 카타르시스 효과 등을 통해 오히려 대중매체가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지만(Feshbach & Singer, 1971),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미디어 방송에 노출된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모두 폭력행동과 범죄행동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line, 1973; Eron, 1972).

범죄에서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자료는 자살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을 통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기사를 통해 자살 사건이 보도될 때 보통 자살자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 어려움 또는 심리적 고통을 그 원인으로 보도하는데, 이러한 원인들과 자살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각이 모방자살(Copycat suicide)을 일으키게 된다고 제안되었다(Gialdini, 2001). 실제로 일부자료들은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의 모방이 모방자살(일명 베르테르 효과)의 중요한 설명기제일 수 있다고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식에 의한 자살방법을 제안한 'Final Exit'이라는 책이 발간된 연도에 미국 뉴욕에서 질식에 의한 자살은 313%나 증가하였다고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자살의 27%의 경우에 자살장소에서 그 책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Stack, 2003). 또한, Phillips(1980)의 연구에서 미디어 보도 이후에 나타난 후속자살의 경우 자살상황 또는 사고상황이 이전에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던 자살상황과 매우 유사하였다고 보고되었다(Gialdini, 2001).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안하는 모방효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유사성의 역할도 미디어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즉, 자살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이 자살자와 유사하면 할수록 그 보도기사의 영향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Phillips(1980)의 자살사건의 자살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근접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연령을 비교한 결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젊은 자살자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직후에는 젊은 사람이 죽은 교통사고가 급증하였으며, 늙은 자살자에 대한 보도 직후에는 늙은 사람이 죽은 교통사고가 급증하였다(Stack, 2003).

#### 인지부조화 기제의 역할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의 위법성이 준법/위법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간의 준법의식이 많이 약해지는 과정은 특정한 결과가 없이 특정 행동에 개입하는 것만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아래의 예는 그러한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큰 대로로 진입하는 도로는 좁은 2차선 도로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출입하는 차량의 수가 적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차가 없을 때 자유롭게 건널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진출입구에 신호등이 생기면서, 그 좁은 2차선도로를 건너기 위한 신호등이 생겼다. 이 신호등은 바보스럽게도 그 좁은 도로를 건널 정도의 시간동안만 잠깐 보행신호(파란불)을 주고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은 빨간불이 켜져 있다. 처음 하루 이들은 파란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건

너는 것을 볼수록 A씨는 화가 났다. 어느 순간부터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했다.

위의 예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널 때마다 A씨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믿음과 교통법규를 어기고 있는 자신의 행동 간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튼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엉망이야” 또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때만 지키면 되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이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 이론은 1957년 Festinger에 의해 개입된 행동으로 인해 개인적 태도나 신념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기본적으로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인지 행동 혹은 환경적 요소들 간의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한다. 만약 인지, 행동 혹은 환경적 요소들 간의 불일치가 있게 되면 심리적인 불편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개인은 부조화에 의해 생성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신념, 태도 혹은 행동을 변화시키게 된다.

Festinger는 인지부조화의 초기연구에서 실험참가자들은 지루한 연산 과제를 30분 동안 실시하게 하였고, 이 과제를 마친 후에 실험참가자들은 대기실에 있는 다음 실험참가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과제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는데 그러한 거짓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험의 목적이 선입견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한 거짓말에 대한 보상으로 한

집단에게는 1달러를, 다른 집단에게는 20달러를 지급하였다. 나중에 과제에 대한 흥미를 측정한 결과, 1달러 지급 집단이 20달러 지급 집단보다 과제를 더 흥미로웠다고 평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화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며, 1달러 지급 집단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하기 힘들었으므로 더 큰 부조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지부조화가 큰 조건에서 태도 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Festinger의 가설을 확인시켜 주었다 (Festinger & Carlsmith, 1959).

후속 연구들은 Festinger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정교화 시켰는데, 인지부조화의 강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이 밝혀졌다(Cooper & Fazio, 1984). 우선 특정 행동을 한 후에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났다고 지각해야 한다. 다음 행동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선택되었다는 인식, 즉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자유선택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자유선택과 관련하여, David와 Jones(1960)는 실험참가자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인물을 비난하는 글을 쓰게 하여 인지부조화를 유도하는 실험에서 실험참가자들이 글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만 태도변화가 부정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여러 연구에서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는 인지부조화로 인한 태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Collins & Hoyt, 1972; Goethals & Cooper, 1972). 다음으로 취해진 행동을 취소할 수 없다고 느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거나 예측할 수 있었을 때 인지부조화 효과는 강하게 발생하게 된다(Cooper & Brehm, 1971).



### 준법의식과 인지부조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1993)에서 실시한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운전자의 의식조사에서 현재의 교통법규 중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이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84.7%(‘매우 많다’는 응답자가 29.3%, ‘상당히 있다’가 55.4%)의 응답자가 현재의 교통법규 중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이어서 고쳐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교통법규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태도는 우리사회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동시에, 이러한 태도가 발달한 배경에 대한 중요성을 제안해 준다. 인지부조화 이론과 일맥상통하게, Yagil(1998)은 교통법규와 교통위반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위반행위와 일종의 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위반행위는 늘어날 것이고, 이미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사후 정당화(post-factum justification)의 노력에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소한 위반행동과 사후 정당화 노력에 의해 법규 자체에 대한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은 필연적으로 인지부조화 이론에 기초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교통법규를 어기는 행동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므로 이 사이에서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Festinger, 1957; Yagil, 1998에서 재인용). 현행 교통법규가 현실적이며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자신이 행한 무단횡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긍정적 태도와 위반행동 간의 부조화는 필연적이며, 이 경우에 있어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법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와 거기서 발생하는 혐오적 각성을

경감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미 행한 위반행동을 돌이킬 수 없으므로 법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만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실험적인 검증

준법의식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인지부조화의 역할은 최근의 일련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실험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허태균, 김재신, 황재원(2004)은 110명의 피험자에게 무단횡단, 불법주차,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위반행동을 지지하는 글을 쓰게 하고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피험자에게 자유롭게 교통법규 위반행동을 지지하는 글 또는 지지하지 않는 글을 쓰는 선택을 준 실험집단과 강제로 지지하는 글을 쓰게 한 통제집단 간의 태도의 변화량을 비교한 ‘피험자간 실험설계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유롭게 교통법규위반을 반대하는 글을 쓴 집단보다는 강제로 교통법규위반을 지지하는 글을 쓴 집단이, 이보다는 자유선택에 의해 교통법규위반을 지지하는 글을 쓴 집단이 더 교통법규준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법규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인지부조화기제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적인 태도의 변화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실험전 기존의 준법태도가 자유선택조건에서 글의 내용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로 허태균, 황재원, 김재신(2005)은 같은 연구주제와 가설에 대한 동일한 실험과제를 이용하여 ‘피험자내 실험설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차로 117명의 피험자들의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8주 후에 모든 피험자에게 무단횡단, 불법주차,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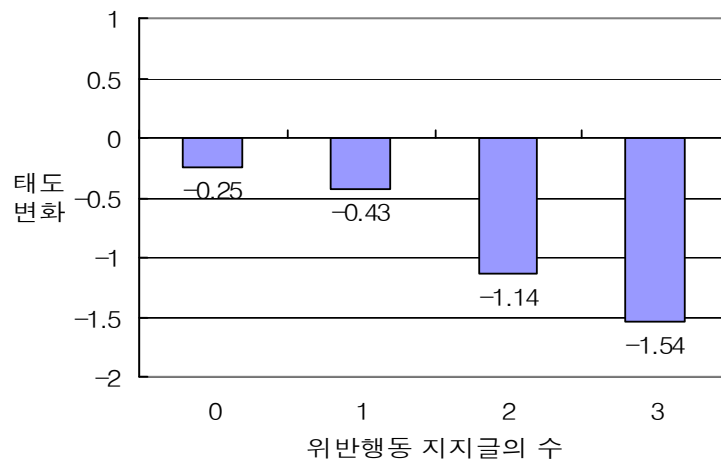


그림 1. 교통법규위반행동을 지지하는 글 수에 따른 태도변화  
 허태균, 황재원, 김재신 (2005, 인쇄중).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준법의식의 약화에서 인지부조화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게재허락 받았음

위반과 같은 교통위반행동을 지지하는 글을 쓰게 한 다음에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태도를 다시 측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많은 교통법규위반행동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쓸수록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는 행동 개입의 정도에 따라 경험되는 인지부조화의 정도가 달라지며 필연적으로 합리화를 위해 필요로 되는 태도변화의 양도 영향을 받는다는 인지부조화적 기제의 역할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전조사에서의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태도와 인지부조화 경험 후의 태도의 변화량에 대한 상관분석은 기존의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더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후에 더 강한 인지부조화를 느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강한 태도 변화를 보인다는 인지부조

화이론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허태균과 황재원(2005)의 최근 연구는 피험자내 설계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통제집단(인지부조화 처치를 받지 않는 피험자)을 포함한 연구에서, 인지부조화 처치를 받은 집단에서만 태도변화가 일어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은 준법의식이 약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인지부조화의 인과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 종합 논의

인간이 형벌의 대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질서의 법규를 위반하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학문

적 이론들이 제안되어왔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범죄행위를 다양한 인간의 일상 활동의 하나로 해석하는 고전이론에서부터, 인간의 범죄성의 생물학적 근원에 대한 궁극적인 기원을 탐구하는 진화론적 이론, 그리고 그 생물학적 인자와 영향을 직접 연구하는 유전학적 이론이 있어왔다. 개개인의 범죄/위법행위에 대한 동기와 원인,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심리학적 접근들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발전되고 있다. 정신분석학은 범죄를 한 개인의 무의식에서부터의 쾌락적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 범죄의 성격적인 원인으로 성적발달단계의 실패를 주장한다. 반면에 특질적 성격이론에 근거한 관점에서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공격성, 반사회적 성격, 흥분수준과 같은 기질적인 측면에 대한 집단적인 접근을 취한다. 또 다른 거시적인 접근은 범죄자 또는 법규위반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지적인 면과 특정 발달 측면(도덕성)에서 미숙하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범죄 또는 위법행동 결국에는 상황적 한계를 가진 합리적인 판단의 부산물이라는 의사결정적 관점이 있다. 물론 여러 환경적 또는 동기/인지적 요인에 의해서 그 판단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러한 행동 결정을 정상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은 어느 정도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그 특성에 따라 특정 분야의 위법현상과 더 관련되어 있거나, 특정 범죄 현상이나 원인들을 잘 이해하거나, 특정 범죄의 방지와 범죄자의 교정에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일반적인 교통법규위반과 같은 규제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보다는 형벌적 범죄와 중범죄에 대한 설명에 더 적합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고전이론과 심리학에서의 의사결정적 관점은 범죄행위의 일반성과 이해타

산적 동기에 근거한 모델들과 일맥상통하여, 일상적인 규제 위반의 원인과 방지, 처벌에 대한 이해에 더 적합한 관련성을 가진다. 유전적인 관점과 성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범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범죄방지와 사전예방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학문적 접근들은 인간의 준법 의식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이해타산적 동기로 범죄를 이해하는 관점은 각 상황의 독특성에 따른 행동을 예언하므로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준법의식의 변화를 설명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지능(도덕성) 발달이론과 같이 범죄와 미숙을 관련짓는 관점은 대부분의 범죄가 성인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반면에 생물학적 이론과 성격적 이론은 개개인의 행동에서 비교적 영속적인 일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경험에 의한 환경적인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준법의식의 변화(특히 약화)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경험에 의한 반영구적인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이론(고전적 조건화와 도구적 조건화)과 사회학습이론이 적합한 설명기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을 따라한다는 모방의 원리만을 사회학습의 원리로 한정짓지 않는다면, 이 이론들이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한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준법행동이 상대적으로 처벌을 받고 위법행동이 상대적으로 강화(일반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실제로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초월한다면, 모든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개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믿음은 준법은 보상을 받고 위법은 처벌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중매체에서 제공되는 뉴스,

드라마, 영화의 내용들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내용을 반복해서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반대의 경우보다 선호한다.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이 준법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일부 설명하고 특정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준법의식의 변화(특히 약화되어 가는 과정)를 모두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지부조화이론은 사람들이 사소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법규위반의 경험이 결국 전반적인 준법의식을 저하시키는 누적효과를 가져오는 심리적 기제로서 역할 할 수 있음이 제안되어져 왔고, 일련의 심리학적 실험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자신의 기존 태도와 자신이 저지르는 위반행동 간의 불일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한 각성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러한 각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준법의식을 변화시켜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의 역할에 대한 확인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작은 법률의 위반이 큰 위법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유전적 또는 성격적인 요인이 아닌 사회적 경험을 통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개인적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반대로 최초의 사소한 위법행동에 대한 예방이 미래의 중대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적이고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둘째, 이러한 사소한 범죄의 위반의 부정적 후폭풍은 오히려 기존에 준법의식이 강한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해 준다. 강한 준법의식은 동일한 위법행위와 더 강한 인지부조화를 일으킬 것이고, 더 많은 태도의 변화를 위반자에

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바로 법률제정과 정책의 입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불필요한 또는 일반인들이 준수하기 힘든 사소한 법규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다. 그러한 법들은 위반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위반행동들은 미래에 진정으로 준수되어야 할 법규에 대한 불신만을 생산해 낼 것이다.

## 참고문헌

- 노관섭 (2002). 제언: 도로 교통사고의 근본처방. 토목(대한토목학회지), 50(3), 4-6.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993).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운전자의 의식조사.
- 명묘희, 김관식 (2003).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8(7), 109-117.
- 박광배 (1996). 범법의 원인과 준법의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0(2), 1-21.
- 박광배 (2001). 법심리학. 학지사.
- 박광배, 조은경 (1998). 자발적인 준법행위의 촉발요인.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4(1), 95-136.
- 허태균, 김재신, 황재원 (2004). 법규위반행동의 부정적 영향과 심리적 기제. 사회과학논집, 21(1), 221-241.
- 허태균, 황재원 (2005). 법규위반행동으로 인한 인지부조화의 부정적 영향. 미간행.
- 허태균, 황재원, 김재신 (2005, 인쇄중).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준법의식의 약화에서 인지부조화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 조선일보 (2000). 교통사고 사상자 전주 인구에 육박. 2000년 5월 11일자.
- 중앙일보 (2003).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53점. 2003년 12월 11일자.

- 중앙일보 (2004. 4). 한국 교통문화 선진국 수준에 여전히 미달. 2004년 4월 8일자
- 중앙일보 (2004. 7). 국민 80% "법 지켜지지 않는다". 2004년 7월 21일자.
- Allen, G. (1976). Scope and methodology of twin studies. *Acta Geneticae Medicae Gemellologiae*, 25, 79-85.
- Aronson, E. (1968). Dissonance theory: progress and problems. In R. P. Abelson, E. Aronson, W. J. McGuire, T. M. Newcomb, M. J. Rosenberg, & P. H. Tannenbaum(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book* (pp. 5-27). Chicago: Rand McNally.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on, R. (1971). Exposure to an aggressive model and apparent probability of retaliation as determinants of adult aggression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343-355.
- Buss, D. M. (1995). Evolutionary psychology: A new paradigm for psychological science. *Psychological Inquiry*, 6(1), 1-30.
- Christiansen, K. O. (1977). A review of criminality among twins. In S. A. Mednick & K. O. Christiansen (Eds.), *Biosocial Bases of Criminal Behavior*. New York: Gardner Press.
- Cialdini, R. (2001). *Influence: Science and Practice*. New York: Allyn and Bacon.
- Collins, B. E., & Hoyt, M. G. (1972). Personal responsibility for consequences: An intergration and extension of the "forced compliance" literat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 558-593.
- Cooper, J., & Brehm, J. W. (1971). Prechoice awareness of relative deprivation as a determinant of cognitive disson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571- 581.
- Cooper, J., & Fazio, R. H. (1984). A new look at dissonance theory. In L. Berkowitz(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New York: Academic Press.
- Davis, K. E., & Jones, E. E. (1960) Changes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s a means of reducing cognitive disson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402-410.
- Darwin, C. R. (1859). *The origin of species*. London: John Murray.
- Dawkins, R. (1989). *The selfish gene*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shbach, R., & Singer, R. (1971). *Television and aggression: An experimental field study*. San Francisco: Jossey Bass.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Festinger, L., & Carlsmith, M. (1959). Cognitive consequences of forced compli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 203-210.
- Fuller, R. (1991). The modification of individual road user behavior. In *Enforcement and Rewarding Strategies and Effect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Road Safety Symposium, eds Koonstra and Christensen, Copenhagen.
- Goethals, G. R., & Cooper, J. (1972) The role of intention and postbehavioral consequences in the arousal of cognitive disso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293-301.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e, R. D. (1983). Diagnosis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two prison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887-890.
- Hare, R. D. & McPherson, L. M. (1984). Violent and aggressive behavior by criminal psychopath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7, 35-50.
- Himmelfarb, S., & Arzai, D. (1974). Choice and source attractiveness in exposure to discrepant messag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6), 516-527.
- Hoyos, C. G. (1965). *Psychologie des Straenverkehr*. Huber.
- Kelman, H. C. (1961). Processes of opinion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5, 57-78.
- Klebersberg, D. (1982). *Verkehrspsychologie*, Springer Verlag.
- Kohlberg, L. (1984).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2).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per & Row.
- Leippe, M. R., & Eisenstadt, D. (1994). Generalization of dissonance reduction: decreasing prejudice through induced compli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395-413.
- Makkai, T., & Braithwaire, J. (1991). Criminological theories and regulatory compliance. *Criminology*, 29, 191-217.
- McCord, W. (1982). *The psychopath and Millieu Therapy: A longitudinal study*. Orlando, FL: Academic Press.
- Parker, D., Manstead, A. S. R., Stradling, S. G., and Reason, J. T. (1990). Determinants of intention to commit driving violations. *Accidents Anaysis and Prevention*, 24, 117-134.
- Phillips, D. P. (1980). Airplanes accidents, murder, and the mass media: Toward a theory of imitation and suggestion. *Social Force*, 58, 1001-1024.
- Raine, A. (1993). *The psychopathology of crime: Criminal behavior as a clinical disorder*. San Diago: Academic Press.
- Rothengarter, T. (1988). Risk and the absence of pleasure: a motivational approach to modeling road user behaviors. *Ergonomic*, 31, 599-607.
- Rychlak, J. F. (1981). *Introduction to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A theory-construction approach*. Boston: Houghton Mufflin Company.
- Quinn, Houts, & Graesser, 1994
- Quay, H. C. (1965). Psychopaths personality as pathological stimulation-seek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2, 180-183.
- Stack, S. (2003).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 238-240.
- Tyler, T.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Yagil, D. (1998). Gender and age-related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traffic laws and traffic violation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1, 123-135.

1 차 원고 접수일 : 2005. 1. 12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1. 21

## Why do children loose their compliance with the law as they grow?

Taekyun Hu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resent research integrated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of human unlawful behaviors in order to clarify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underly the changes in compliance with and attitude toward law as time goes. Most well-known theories such as classical theory of crime, biosocial and evolutionary theories,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including psycho-dynamic theory, personality, intellectual/moral development theories, and decision-making were discussed in their unique points in explaining human unlawful behaviors. Finally, social-learning theory and cognitive-dissonance theory has been suggested to explai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the phenomena in which people's attitude toward law and compliance with law become weaken through violation experiences of trivial lawful regulations. Especially, the logic of cognitive-dissonance theory (that people committed violation of trivial laws should experience dissonance with their original belief of compliance with law and negative arousal and try to remove the arousal by change their belief along with their behavior) were theoretically convincing to explain the phenomenon and supported by a series of experimental studies.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activities were discussed in the basis of the cognitive dissonance theory.

*key words* : *cognitive dissonance, attitude toward law, attitude change*